

## 협회행사 보고(2) :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우리 협회는 '제39회 도서관주간'(4월12일 ~18일)과 '세계책과저작권의날'(4월 23일)을 맞아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같은 어린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4월 24일(목) 2시부터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송영숙 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도정일 공동대표의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서비스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기초강연이 있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김미선 서울특별시립동대문도서관 사서가 발제하였다. 김 사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수적으로 너무 적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걸어오기보다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보다 자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보다 많은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확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구상을 제시하였다. 김 사서는 작은 어린이도서관 확충방안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 종교·사회단체의 작은 어린이도서관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작은어린이도서관 지원과 운영에 대해서는, 1) 작은 어린이도서관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며, 3) 어린이도서관 운영 컨설팅기구 설치(가칭 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팀)을 제안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은 사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은 독서활동을 심도있게 하기 위한, 또는 어린이 인성발달을 적기에 도와줄 수 있는 보조역할을 하며, 많은 어린이들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도서관내에서 소수의 어린이를 지켜보고 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때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이유로 '작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서 혼자 모든 것을 진행하기보다는 사서-어린이-부모-전문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독서 상담사 활용으로 가정문제, 심리적 부적응, 책 읽기를 싫어하는 어린이, 편독하는 어린이들을 상담하고 부모와 같이 지도해 보는 상담과 선정을 위한 감시단 활동, 비디오, CD-ROM 등 비도서자료의 효과적인 활용법 워크숍, 교과과정에 맞춘 도서 및 비도서자료집, 책 읽어주기, 내가 만든 첫 동화책, 동극 및 동화구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관광부 내에 어린이도서관 컨설팅조직을 두어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한 박지민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어린이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해 말하였다. 박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어린이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또한 공공도서관 내에 어린이열람실이 없는 곳도 있으며 사립 어린이도서관의 운영도 열악한 실정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 그들만

의 발달 특성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을 이루기 때문에 성인실과 다른 것은 어린이도서관의 획일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인격형성과 지적능력 향상 및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내환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용미 서울특별시립동작도서관 사서는 어린이도서관의 확충·발전을 위한 구상에 대해 도서관의 거리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강조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민간 어린이도서관 운영 현황과 과제"에 대해 전영순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장이 발제하였다. 전 회장은 사립어린이도서관운동의 시작과 수와 분포, 규모, 이용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립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어려움은 바로 불안정한 장소 문제라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도서관 운영비 조달문제라며 해가 갈수록 제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보니 임대료, 인건비, 도서구입비, 관리비 등 점점 올라가는 운영비를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 지고, 업무가 과중하여 힘겨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도서관이 전국에 많이 세워지고, 국가에서 어린이들이 걸어서 갈만한 곳에 어린이도서관을 세울 때까지라도 사립어린이도서관은 존재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목적 없이 사용되고 있는 공공장소 안에 사립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사립어린이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줄이는데 매우 바람직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주민문화센터로 모습을 바꾼 동사무소의 일부 공간과 문을 닫은 파출소 등에 사립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은 물론 운영비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동안 어린이도서관운동가들의 활동을 인정하여, 이제는 도서관구입비는 물론 적어도 한두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좋은 시설과 넉넉한 규모와 질 좋은 책을 갖춘 어린이도서관을 곳곳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꿈이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사립어린이도서관의 활동은 계속 될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나선 김경숙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사무총장은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자들은 어린이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어린이 책과 어린이문화에 대한 나름의 소신도 가졌다고 하면서 이는 어린이도서관운영의 핵심이고 최대의 강점이라고 하였다. 김 사무총장은 공공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면 인접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거나 부모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환경이나 개인적인 형편이나 상관없이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즐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이들이 좋은 책과 도서관이라는 사회적 환경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작은 도서관운동과도 통하는 일이라며 어린이와 도서관이 만나는 일에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은 어린이들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다양한 삶의 형태를 만나는 곳이라며 어른과 아이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였다.

이진우 부천문화재단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 사서는 부천시에는 현재 4개의 사립도서관과 3개의 전문도서관(점자도서관, 족보도서관,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15개의 공립문고가 있는데 이 중 8개의 공립문고는 2001년 초부터

시작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작은도서관분과 : 정식명칭 : 작은도서관만들기네트워크분과'를 중심으로 한 '마을마다 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부천의 경우는 부천시립도서관, 시의원, 사립문고, 어린이도서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작은도서관분과는 사업목표를 '동네마다 하나씩 작은도서관 만들기'와 '도서관네트워크'에 두고 첫 번째 사업으로 '부천지역도서관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도서관운동에 대한 지역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1년 사업목표를 작은도서관 확대를 위한 몇 개의 작은도서관 설립을 통한 모델링 사업에 두었고, 이것이 공립문고 설립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사서는 부천지역의 공립문고 설립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도서관운동의 사례는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이거나, 민간어린이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단 한가지 정답은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단지 각 지역에서 도서관운동을 전개해감에 있어 시립이나

구립도서관만의 활동이 아닌, 그리고 민간도서관만의 활동이 아닌, 그리고 민간도서관만의 활동이 아닌 공공과 민간의 결합을 통한 지역 전체적인 활동의 필요성과 공립문고라는 형태로 민간도서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해낸 하나의 사례로서의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부천지역은 35개동에 하나씩, 35개 공립문고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문고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제대로 된 도서관 운영을 해냄과 더불어 보다 더 체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천지역의 사례는 전국적인 도서관 활성화와 어린이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도서관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에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네트워크 활동과 이를 통해 한가지씩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다고 하였다. (글 : 심효정, shjcap@hitel.net)

## 한국도서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우리 협회는 도서관 발전과 운영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1년 제정·발표된 바 있는 『한국도서관기준』을 20여년 만에 새롭게 개정합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위원장 손정표 경북대학교 교수)를 구성하고 3년여 작업한 끝에 5월 초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최종안에 대해 6월 20일까지 지상(誌上) 공청회를 가집니다. 최종안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http://www.korla.or.kr>)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종별(공공, 대학, 학교, 전문, 특수) 기준안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우편, 팩시밀리,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협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도서관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접수처/문의 : 협회 사무국 (담당 : 기획부장 이용훈)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전화 : 02-535-4868, 전송 : 02-535-5616  
 이메일 : blackmt@korea.com